

“다시 만나는 가족·친지·지인에 양손 가득 행복담아 마음 전해요”



연일 계속되던 무더위와 오랜 장마가 끝나자마자 한가위가 훑 찾아왔다. 8년만에 찾아온 이른 추석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선물 고르기가 분주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도 많은 만큼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다. 유통 업체들은 추석을 맞아 각종 선물세트를 앞다퉈 출시했다. 치솟는 물가에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위해 노력했고, 아직 끝나지 않은 더위 탓에 신선 배송에도 크게 신경을 썼다.

무더위와 폭우, 이른 추석으로 부족한 농산품 확보에도 발빠르게 나섰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 추석 선물세트의 인기도 예년보다 크게 높아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들도 관심을 끌고 있다. 무더위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면역력 증진을 위한 제품들이 인기가 높다. 추석을 맞아 스테디셀러 제품들을 알차게 묶어 가격을 크게 낮춘 세트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 눈여겨 볼 만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롯데마트

ESG경영 일환... 환경 생각한 ‘착한선물’

‘친환경’ 선물세트

롯데마트가 지구를 위한 ‘친환경’의 가치를 담은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0월 ‘다시, 지구를 새롭게’한다는 의미를 담은 친환경 캠페인 브랜드 ‘리얼스(RE:EARTH)’를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명절 선물세트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상품을 보호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박스, 젤 아이스팩 등을 포장재로 활용한다. 포장재들은 부피가 크고 분리 배출이 어려워 매년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롯데마트는 이번 추석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한우 선물세트의 포장재를 100%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버섯 선물세트의 외박스를 모두 콩기름 잉크를 활용해 제작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롯데마트 한우 선물세트의 보냉을 위한 아이스팩은 물과 전분을 원료로 사용해 기존 대비 보냉 효과는 높이면서 제작 공정은 줄였다. 상품 포장재도 종이로 제작한 지함(사진)과 재활용이 가



능한 R-PET(Recycled-Polyester) 원단으로 만들어진 가방을 사용했다. 특히 R-PET 원단은 폐페트병에서 탄생한 재활용 폴리 원단이다.

친환경 선물세트는 상품은 ‘경험’과 ‘공동체적 의미’를 중시하는 고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한우 선물세트 매출이 작년 대비 20% 성장하는 등 고객 호응도 좋다.

또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명절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물가안정 선물세트도 살뜰히 준비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백화점

키워드 ‘가성비’... 프리미엄 물량 40% ↑

한우·정관장·활전복 등

롯데백화점이 지난달 19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에 돌입했다. 올 추석 선물세트의 키워드는 ‘가성비(價心比)’다. 가성비는 가격대비 개인별 취향에 따른 심리적인 만족도를 일컫는 신조어로 고급 소비재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을 뜻한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추석 선물세트를 희소 가치가 높은 초고가 상품들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선물 물량을 지난 설 대비 40% 이상 늘렸다.

대표 상품은 지난 설 완판 한 ‘프레스티지 넘버(No.)9 명품 한우 기프트(GIFT·사진)’다. 한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1++ 등급 마블링 스킨 9년에서 가장 좋은 부위들만 엄선했다.

최고급 천삼을 대한민국 칠기 명장 권영진이 만든 자개함에 담아 선보이는 ‘정관장 다보록 천람’과 달모어 40년산, 5대 사또 그레이트 빈티지 등 양주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친환경 등 가치 소비를 담은 선물도 다양하다. 지속 가능한 양식업업을 의미하는 ASC 국제 인증을 획득한 ‘ASC 활전복 GIFT’가 있으며 ‘동



물복지 한우 명품 GIFT’, ‘산청 유기농 한우 명품 GIFT’ 등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기른 한우 세트도 있다.

유명 맛집 컬래버레이션 상품으로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우 오마카세 레스토랑 수린과 함께 기획한 ‘수린 오마카세 세트’가 있다. 6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선정 양고기 숯불구이 전문점 이치류, 세계 정상 국민 만찬을 장식한 콩두점점, 연희동의 훈제 연어 맛집 롱보트 스모커 등도 있다.

/김서현 기자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한우 역대최대 물량 9만5000세트

한우·수산물 세트 등

현대백화점이 9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점포와 온라인몰 더현대닷컴·현대H몰·현대식품관 투룸에서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방역규제 해제로 고향을 찾는 이들이 늘며 프리미엄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00만원 이상 고가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 보다 20% 가량 확대해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소중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프리미엄 선물을 찾는 고객 수요가 늘고 있다”며 “특히 평소보다 이른 추석으로 선물을 미리 준비하려는 수요가 늘며 지난해 대비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 기간 동안 상담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 기간 동안 현대백화점이 선보인 100만원 이상 초(超)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45% 신장하고 대부분의 상품이 조기 완판 되는 등 프리미엄 선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명절 대표 프리미엄 선물인 한



우 선물세트를 역대 최대 물량인 9만5000세트 선보인다. 100만원 이상 초(超)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50% 늘리고, 품목수도 기존 5종에서 6종으로 늘렸다.

수산물 세트는 특대 크기 최상위 등급 참조기만을 선별해 전통 삼겹 방식으로 염장한 ‘현대명품 참굴비 10마리 수(秀)세트(35cm 이상)’와 마리당 1.6kg 이상인 특대 크기만 선별한 ‘현대명품 특대갈치세트(65만원)’ 등을 준비했다.

/김서현 기자

이마트

“육류 세트 10여종 등으로 가성비 챙기세요”

육류, 수산·과일세트

이마트가 방역규제 전면 해제 이후 첫 추석을 맞아 프리미엄 선물세트도 풍성하게 선보인다.

육류 세트는 매년 20만원대 이상 한우냉장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올 설에도 20만~30만원대 육류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설 대비 20% 증가했다.

이마트는 올해 경주천년한우, 화식한우, 제주한우 등 국내 손 꼽히는 한우 산지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냉장 육류 선물세트 10여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1++ 9등급을 자랑하는 초프리미엄 ‘조선호텔 경주천년한우 NO.9(등심구이용/안심구이용/채끝구이용 각 1kg·사진)’를 1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준비했으며 ‘조선호텔 화식한우 구이 세트(화식한우1+등급 이상, 등심구이용/등심스테이크용/채끝구이용 각 1kg)’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수산 세트로는 고급어종 금태를 활용한 선물세트 3종을 새롭게 준비했다. 금태는 ‘오마카세(말김차림)’ 등을 통해 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최근 몇 년 새 인기 어종으로 떠올랐다. 보통 150g 내외의 사이즈가 일반적이거나, 금번 상품은 손질된 500g내외의 상위 1% 사이즈만을 선별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과일 세트로는 2020년부터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샤인머스켓을 활용한 혼합 세트를 지난 추석 7종에서 올해 15종으로 대폭 확대, 총 물량도 2배 이상 늘렸다.

/김서현 기자